

지역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2015년 여름철 언론브리핑 및 간담회 결과 보고

【 2015. 6. 2.(화) / 청주기상대】

□ 개 요

- 일 시 : 2015. 5. 22.(금) 11:00 ~ 13:00
- 장 소 : 청주기상대 회의실(2층)
- 참석자 : 총 11명
 - 외부(2명) : 지역 언론사 기상담당기자(충북일보 김동식 기자, 충청타임즈 김상규 기자)
 - 내부(9명) : 청주기상대장, 예보관, 장기예보 담당 주무관 등
- 주요 내용
 - 2015년 충북 여름철(6~8월) 기상전망 및 봄철 특성분석
 - 여름철 방재대책 및 정책 공유
 - 최근 고온현상 등 이슈 토론

□ 질문 및 토의사항

- 최근 5월 고온현상의 원인과 전망은?
 - 5월 중순까지 충북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았고, 최근 2~3일 동안 평년보다 4~7도가량 높은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음.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온현상은 서해상에 지상고기압이 계속 위치하면서 따뜻한 서풍류가 유입되고,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높았음.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6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으로 보임.

○ 충북지방의 여름은 빨라지고 있는가?

→ 기상청에서는 일평균기온이 20℃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보는데, 현재 충북지역의 여름은 6월 2일 시작되고 있으나, 기후변화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21세기 말에는 5월 15일로 현재보다 보름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함.

○ 5월까지 태풍이 많이 발생했는데, 올 여름 태풍 전망은 어떤가?

→ 금년 1~5월까지 중앙 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상층 발산 강화로 태풍활동이 활발하였으나,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2~3개 정도로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.

□ 언론 보도내용

일자	언론사	보도 타이틀
5.25	충북일보	올 여름 무더위 6월부터 찾아와
5.25	뉴스1	올 여름 충북지역 기온·강수량 평년과 비슷



<충북일보>

<뉴스1>

□ 회의사진

